9/20(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1)
데살로니가후서 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몇 달이 지나 바울에 의해 또다시 보내진 두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도 데살로니가전서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교훈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로 인한 미혹거리가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의 선교팀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라 불리우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 2차 선교팀으로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방해자들로 인해 세 안식일 동안만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행 17: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고자 노력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자기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 개월이 지나 두 번째 편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1절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여전히 고린도 지역(바울이 머문 기간, 1년 6개월)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구원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분리된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2절도 바울의 서신서 인사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평강'은 육체적 평안을 넘어서서 죄사함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연약한 마음 그리고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3-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살전 5:23-2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풍성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주의 교회 안에 서로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까지도 함께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갈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셋째로, 믿음과 인내로 어려움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방해자들로 인해 큰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생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인내로 꿋꿋이 모진 환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인내로 인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족합니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외롭게 겪는 영적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체의 구성원은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질병을 위한 기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1년 8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에볼라와 비슷하며, 코로나19와 같이 동물 숙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된 발견된 마르부르그(Marburg) 바이러스 질병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마르부르그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88%에 이르며, 현재는 백신이나 예방약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이다. 기니에서는 두 번째 에볼라 발병 종식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새로운 전염병사례가 발생한 상황이다. 기니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 기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가 긴밀히 공조하여 더는 전염병이 확산하지 않고, 사회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 임상순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